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다

목 차

우리의 발자취

다시 보는 우리의 발걸음	4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6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성과	10

앞으로 나아갈 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개요	14
--------------------------	----

우리의 결실

함께해서 더 큰 희망, 더 큰 도전 : 참여자 우수사례	15
열정이 꽃피우는 순간들 : 지원 코디네이터 참여 소감	67

다시 보는 우리의 발걸음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2023년

11월

- 모의적용사업 참여자 모집
- 지원기관 실무자 교육 실시
 - 모의적용사업의 방향성 및 절차 안내



2024년

1월

- 지원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 간담회
 - 개인예산계획 급여 승인 관련 논의



3월~7월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준비

11

12

12월

- 참여자 교육 실시
 - 총 4회 진행
 - 모의적용사업 개요 및 절차 안내



- 지원기관 현장 모니터링
 - 총 4회 진행
 - 개인예산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애로사항 공유 및 전문가 컨설팅



2

2월

- 모니터링단 간담회
 - 모의적용 사업과정에 대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의견 공유



- 개인예산 심의위원회 진행
 - 개인예산계획 개별 사례 검토 및 승인



3-7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2023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목 적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전 개인예산 지급 전 단계까지 모의적용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및 운영절차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범사업 모델의 시행가능성 점검 및 모델 수립

개 요

- 진행기간 : 2023. 10. ~ 2024. 3. (6개월)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만18세~65세)
-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재단
- 지원기관 :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4개소**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주요내용



‘내가 원하는 삶’에 첫 걸음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욕구에 대한 주체적 고민



함께하는 고민

- 참여자 85명의 개인예산 계획 수립 및 욕구 파악
- 급여 승인을 위한 승인원칙 및 사정도구 수립



개인예산제를 향한 시도

- 실제 개인예산 지급을 위한 현장 적용성 검토를 통해 정교화된 시범사업 프로세스 구축

2024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1차 시범사업

목 적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추진에 앞서 참여자 선정 및 개인예산 지급, 모니터링 등 전체 사업 운영을 통한 사업모델 정교화

개 요

- 진행기간 : 2024. 7. ~ 2025. 3. (8개월)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증장애인(만18세~65세)
- 지원내용 : 1인 최대 240만원 범위 내 승인된 서비스 이용예산 지원
- 지원규모 : 100명
-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재단
- 지원기관 :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7개소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주요내용



다양한 욕구, 맞춤형 지원의 시작

- 다양한 욕구 파악 및 개인 예산 이용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 참여자 91명 개인예산 계획 수립, 75명 개인예산 이용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 심의를 통해 승인된 서비스 이용 시작(4개월간)
-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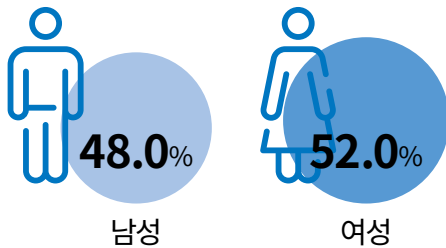


나에게 꼭 필요한 개인예산으로 한 걸음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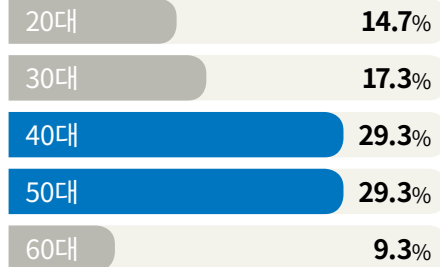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완 사항 검토 및 장애인 욕구에 알맞은 지원영역 확대 방안 모색

개인예산제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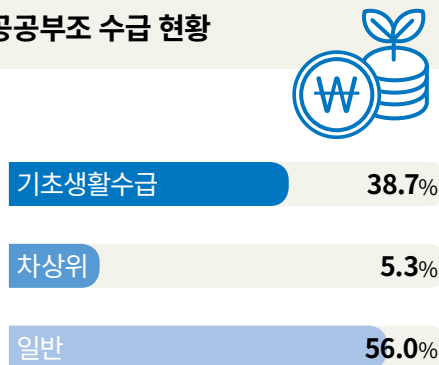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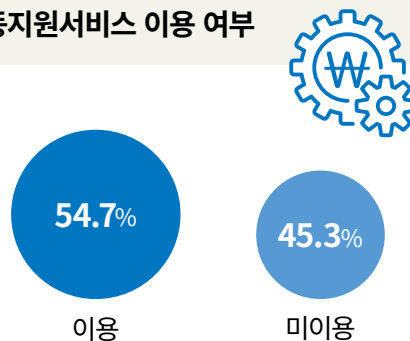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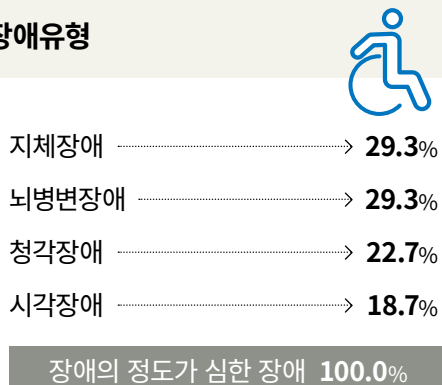
공공부조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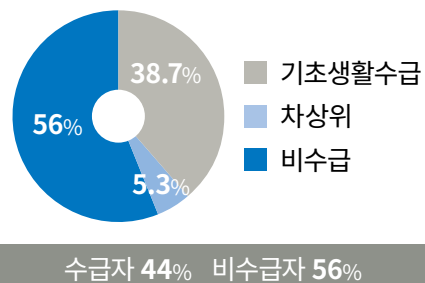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장애유형



공공부조 수급현황



주요 이용 서비스

일상생활



- IOT 기기
- 일상생활지원물품

사회생활



- 자기개발 교육비(영상편집, 미술, 야구, 피아노, 해외 학술연구 진행 등)
- 보조기기(손가락 접촉형 마우스 등)
- 수어통역비

취·창업활동



- 취업연계 교육비(바리스타, 아로마테라피스트, 네일아트, AI 민간자격증 취득, 자격, 보치아, 스피치,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
- 수어통역비

건강·안전



- IOT 기기
- 욕실 개조(문턱 제거, 접이식 목욕 의자,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 건강안전 지원물품(라디에이터 등)
- 보조기기(특수 들것, 홈 CCTV)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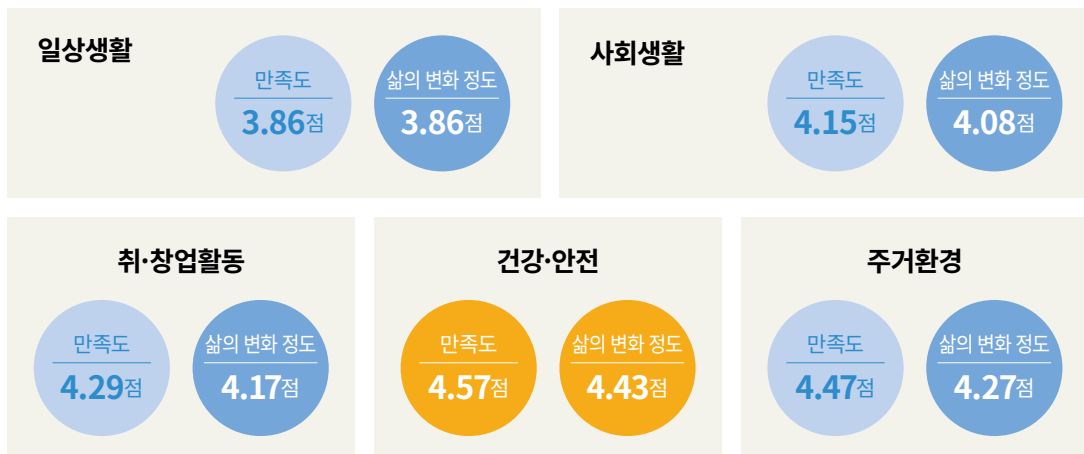
- IOT 기기
- 전동블라인드
- 맞춤형 싱크대 제작
- 현관 경사로 설치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성과

개인예산제 이용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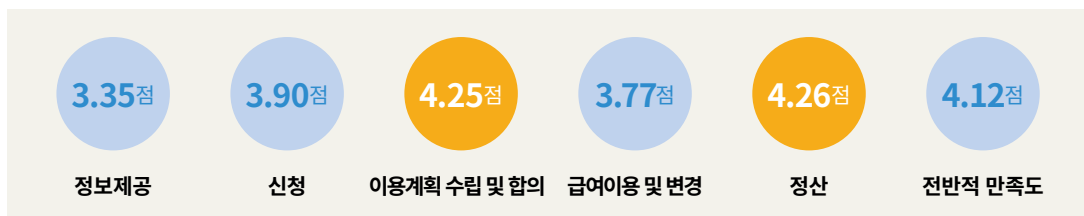
1) 지원영역별 만족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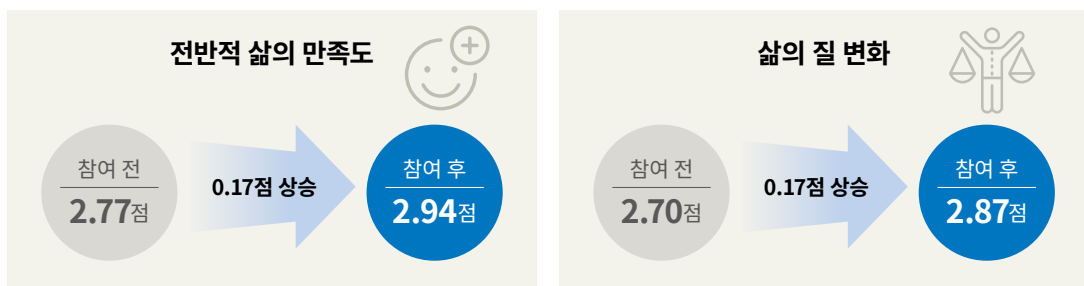
2)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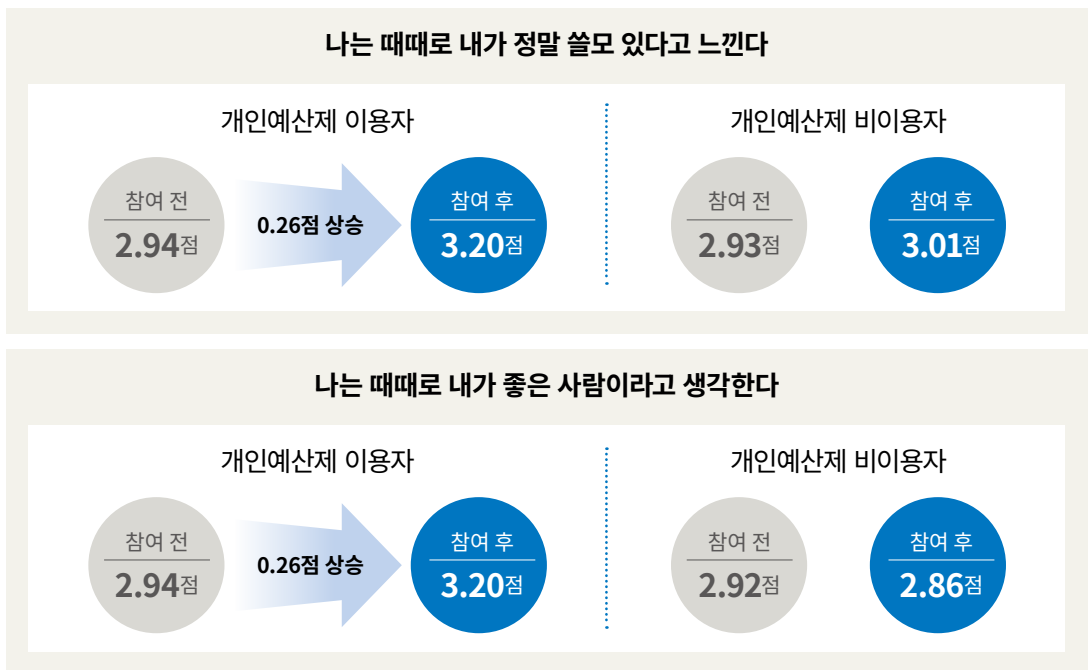
3) 전반적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변화

(4점 만점)



4) 자존감의 변화

(4점 만점)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4점 만점)



참여자의 한마디

나도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미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태하고 은둔생활에 빠진
저에게 개인예산제는
큰 힘이 되고
활력을 주었습니다.

개개인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학습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편해야 할 집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
안락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큰 원동력이 되어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되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
수업을 받으면서
다시 학교생활을 할 때처럼
흥미롭고, 삶의 질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이대로 멈추기
너무 아쉽습니다.

●
장애로 인해 포기했던
배움을 개인예산제로
기회를 얻어 목표로 하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앞으로 개인예산제가
더욱 확대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나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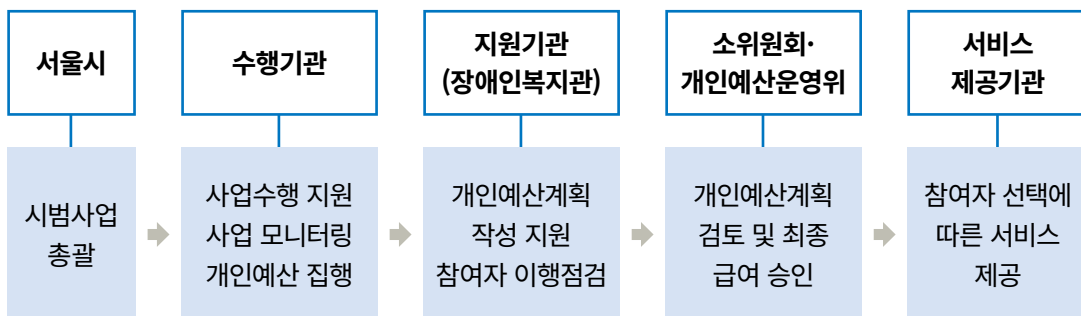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개요

개요

- **진행기간** : 2025. 5. ~ 2026. 2.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대상** :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만18세~65세)
- **지원내용** : 1인 최대 240만원(6개월) 범위 내 승인된 서비스 이용예산 지원
- **지원규모** : 130명
- **지원기관** :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 내외
- **지원영역**

지원영역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일상생활 돌봄 관련 서비스
사회생활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서비스
취·창업활동	구직 및 창업 관련 교육 지원
교육(자기계발)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 및 학습비용 지원
건강·안전	건강 및 안전 관련 서비스
주거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운영절차



우리의 결실

함께해서 더 큰 희망, 더 큰 도전

참여자 우수사례

김○○님(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6
김○○님(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18
김○○님(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24
김○○님(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27
김○○님(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30
박○○님(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32
송○○님(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34
신○○님(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37
엄○○님(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40
오○○님(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44
이○○님(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48
이○○님(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50
임○○님(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53
정○○님(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56
정○○님(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59
최○○님(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62

자기주도성을 통한 삶의 변화

개인예산제와 나의 꿈

김○○ 님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애니메이션을 보며 번역가를 꿈꾸다

장애 이후 모든 생활에 제약이 생겼지만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유일한 취미로 남았습니다. 의대 진학을 위해 쌓아두었던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주인공들의 대화 내용을 통역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번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중심계획(PCP)과 자기주도성의 경험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탐색하고 선택하며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었으나,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람중심계획(PCP) 참여를 통해 선택의 경험



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을 얻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가며 나아가는 과정은 그동안의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나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조금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한 꿈의 실현

이후 개인예산제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 제 자신이 원하는 길을 보다 명확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번역가라는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면서 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기효능감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선택한 길에서 제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새로운 도전을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힘을 얻은 저는 번역가로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제 가능성을 더욱 넓혀가고자 합니다.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개인예산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원 덕분에 저는 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미래를 향한 도전도 두려움 없이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크리에이티브 공간, 다시 시작하는 꿈

김○○ 님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치유 동화작가의 꿈, 사람과 생명에 관심있는 심리학도

선천성 장애로 인해 하반신과 상지 사용이 어렵고 손목의 운동 반경이 매우 작아 사회생활 전반이 제한적이지만 어릴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독려한 모친의 자립지원 방식으로 독립심이 강하여 나의 목소리와 손가락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으며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는 참여자분입니다.

참여자분은 서울 모 병원에 소속된 직장내 인권센터의 조사원으로 근무하며 사람을 만나 상담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포스코산하 IT서비스지원팀, 아시아항공 예약영업 담당 콜센터에서 근무했을 때에는 직업을 통한 스스로의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상담관련 학력을 활용하여 직원들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때 관련 교육을 수료하였던 것이 현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계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방송 모니터링 시간제 근무를 하며 노모를 대신하여 가게를 책임집니다. 그럼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스스로 세금을 내고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긍정적이고 자주적인 인물입니다.

참여자분은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아 취미와 특기도 많습니다. 어릴 때 화가를 꿈꾸기도 했던 참여자분은 아직도 치유를 주제로 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2급과 직업상담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심리학도로서의 연결성을 찾으려 노력중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생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어떻게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 생명의 원리를 깨닫기 위한 사고를 많이 하는데, 대학시절 심리학을 전공한 계기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좀더 심화한 연구를 통해 인문학적 부분과 연결하여 사람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참여자분은 지인의 소개로 개인예산제를 알게되어 신청 마감 이틀 전 부랴부랴 내용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참여자 교육을 통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복지관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참여 동기를 재인식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분은 신청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숨어있었던 내적 동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 마음구조 SOS라는 단체에서 자살시도자 구조 챌린지 봉사활동을 하며 영상컨텐츠를 만들었던 경험, 중등시절 사회적 차별로 인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어 세상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연하는 사람으로서 참여자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마음, 심리학 심화 공부를 통한 치유프로그램 컨텐츠 개발을 해보고 싶었던 기억을 꺼내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신청서를 쓰는 과정은 과거 참여자분의 꿈을 현재로 소환시켜 개인예산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참여자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사업참여 이전에도 다양한 직업활동에 도전하며 ‘세금 내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삶을 통해 장애는 불행의 획이 아닌 기적의 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협소한 가정내 작업공간으로 인해 사회생활보다 오히려 가정내에서 제한이 더 많았습니다. 휠체어가 오갈 수 없는 작은 방, 수북히 쌓여진 책이며 어릴 때 수상한 그림이며 꿈의 흔적들은 움짱달짝 할수 없는 방만큼이나 답답한 채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책상까지 접근이 어려워 방송을 보며 모니터링하는 일도 거실을 활용해야 해서 가족과 공간분리가 안될 뿐더러, 휠체어이용 장애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재택근무 환경으로서는 열악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간의 변화가 중요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참여자분은 회사근무를 하고 있기에 복지관 담당자와 만나 깊은 내용의 인터뷰를 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업무가 상담조사다보니 업체이건 복지관이건 담당자와 약속을 잡거나, 문자 응답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주말에 집으로 찾아오시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놓지 않았던 기관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개인예산계획수립을 위해 만났던 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의 10여년만에 만나는 복지관 직원과 그간의 삶의 궤적을 나누며, 아주 어릴 때 자신이 어떻게 우울감에 빠졌었는지까지 꺼내어 올리며 과거 소소하게 다짐했던 꿈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예산계획수립 과정은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원했던 만큼의 ‘크리에이티브 베리어프리 작업실’은 아직 구성되지 않기는 했습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을것이고 소통과정의 어려움도 있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정내용중 가장 기대했던 것이 ‘크리에이티브 공간’이다보니 조금 더 참여자분에게 주도성있는 요구권과 그에따른 소통과 반영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 작은방에서 물밀 듯이 쏟아져 나온 짐들을 처리하는것도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랜세월의 흔적을 노모와 몇안되는 사람이 처리하기엔 쉽지 않은 작업이긴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한 사실상 가장 큰 변화는 ‘정리’입니다. 해묵은 창고방 같은 공간을 재구성해야하다보니 아껴두었던 책들이나 묵은 짐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버림에서 시작되는 듯 보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비워진 공간에 이젤도 놓고, 원하는 장비들도 채워가면서 참여자분 스스로의 크리에이티브 공간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그러기에 지역의 조력과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예산제 수립과정에서 나온 계획은 참여자분의 꿈의 총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예산으로 지원된 것과 별도로,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인예산에서 지원받을 것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지역 복지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도전해 보려합니다. 복지관에서 사례지원 회의를 통해 개인예산계획 수립과정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을 논의하였고 다음처럼 함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예산계획 수립과정에서 나온 계획

1. 심리 치유 동화 작가를 위한 글쓰기 교육, 도서 발간
 -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를 통해 글쓰기 교육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안내 진행
 -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를 참가 신청 완료, 이후 함께 활동 예정
2. 일과 공부, 치유 그림을 위한 베리어프리 작업공간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으로 구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션 데스크 책상 (20만원~40만원 가격대 형성) 안내 진행
3.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물리치료
 - 본관 방문 컨설팅 안내 후 참여 희망 시 진행 예정 (총 3회 예정)
4. 몸에 맞는 기립 휠체어
 - 보건복지부 개인 예산제 참여를 통한, 기립 휠체어 구매 안내
 - 서울시 보조기기 센터 임대 신청 안내
5. 영어독해 능력 향상 교육
 - 내일배움카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학습 이용권 활용을 통한 교육 참여
 - 영어교육 관련 자원봉사자 확인 (미래경영부)
6. 조력자를 위한 보조공학
 - 해오름 자립 생활센터 보조기기 신청 안내
7.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 교육, 인권 강의
 - 기후 위기, 생명 등에 대한 영등포 인문학 모임인 생태적 지혜 연구소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안내, 조력
 - 본관 인권생태게팀 장애인식 전환 교육 시 함께 진행 예정
 -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전문 강사 자격 취득 안내

앞으로의 계획

- 6개월, 자기계발 휴직을 합니다.

지금 있는 회사(인권센터)에서 복직을 전제로 한 6개월간 무급 자기계발 무급휴직을 승인받고, 그간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등과 연이 되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논의 중입니다.

- 영화제, 글쓰기 하는 사람으로 도전합니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개인예산제로 시나리오 작가에 도전하고 있는 분과 함께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에 신청하였고, 글쓰기 등 새롭게 작가라는 꿈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생명과 인문학, 지역주민 모임을 가져보려 합니다.

‘생태적 지혜 연구소’라는 인문학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동조합 주민모임에 참여하려 합니다. 복지관 실무자들이 먼저 참여 하고 있었고 조합원 참여를 소개받았는데 기후위기, 생명과 관련된 모임이라 마음에 드는 활동입니다.

이외에도 가능하다면 복지관 연결자원 활용, 서울시 또는 장애인고용공단 인권강사 양성 과정 등 도전을 고려중입니다.



Rising Force

솟아오르는 힘

김○○ 님(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나의 강점과 재능, 열정

저는 과거 락그룹 ‘The Cross’ 메인보컬로 활동하며 ‘락’이라는 장르를 대중음악으로 알리는데 기여했고, 한때 ‘미친 고음의 소유자’로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비록 교통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중도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어깨 밑으로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폐활량 역시 비장애인의 1/4 정도밖에 발휘되지 않아 노래를 부를 때에는 복압기로 배를 강하게 압박하며 노래해야 할 만큼 신체적 제약이 큰 상태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의 참여 동기

장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의 삶만큼은 내가 주도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지는 음악이라는 장르 외에 창작이라는 분야에도 도전 의식을 가지게 했고, 스스로 저만의 특색이 담긴, 질 높은 영상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전 의식을 좀 더 의미 있게 실행해보고자 2024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해 신청하게 되었고, 전문가의 개인 맞춤형 강습을 통해 영상제작 및 편집방법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인 맞춤형 강습’을 통해 배운 기술적 요소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고, 저의 신체적 한계에 맞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고효율적으로 영상을 제작해내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대중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혀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참여 이전 나의 상황

수시로 나타나는 통증으로 하루 4~5시간만 좌식활동이 가능하다 보니 3~4분 가량의 콘텐츠를 하나 제작하는 데에만도 열흘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저의 존재를 알리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가수 생활 당시 어깨너머로 배웠던 촬영과 편집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커버곡 영상을 만들어 나갔지만, 낮은 영상미의 콘텐츠는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지는 않을까 매일매일을 불안해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샌 적도 많았습니다.

참여 이후 나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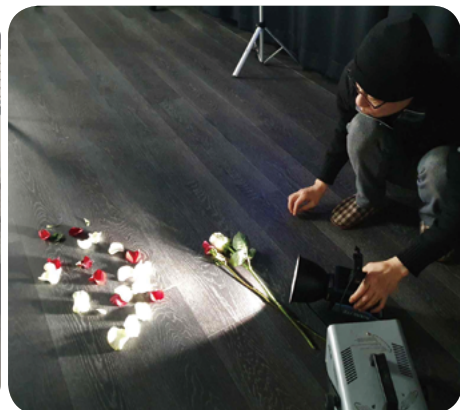
진행 초기에는 저의 장애와 음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신체적 한계에 맞게 효율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전문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코디네이터의 조력하에 함께 만나 개인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러 노력함으로써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 음악 녹음·촬영·제작·편집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번 개인예산제 지원사업을 통해 원포인트 레슨을 받게 되면서 촬영 시 조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부터 소품 활용 방법, 촬영 무빙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편집 시에도 자연스러운 영상 믹싱 방법, 구도, 자막 삽입과 같은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유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업로드 된 빠른 시간 내에 8,32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업로드 이후 youtube 구독자 수는 4.85만명에서 4.86만명(25.02.13.기준)으로 증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관심과 응원 은 저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작품에 더 큰 열정을 갖게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여전히 진행은 더디지만 배운 부분들을 활용해가며 저만의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발전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제가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 고마운 제도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회 구성원은 사회활동에 제약이 크다는 생각과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가 있어도 지원이 마련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 더 많은 활동과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용기를 내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학습한 부분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자비를 투자해서라도 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한 영상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이 장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된 중도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제 삶이 다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미술 전문 교육을 통해 농인 화가로서의 제2의 인생을 꿈꾸다

김○○ 님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참여자 소개 및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어려서부터 청각장애가 되어 농인으로 살아왔고, 꾸준히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농인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또한 결혼 후 취업도 못하고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통역 없이는 사회활동에도 제약이 많았기에 주로 남편에게 의지해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농인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서 진행된 기초 미술교실에 참여하게 되었고, 생애 처음으로 미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우는 동안 너무 즐겁고, 미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되어 삶에 큰 행복을 느끼고 활력이 생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청각장애인으로서 교육의 접근성이 여전히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는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청각 정보에 의존하는 강의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는 미술 교육을 받고 재능을 발전시키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미술전문교육의 필요성을 꾸준히 느끼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어려움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개인예산제를 알게되었고, 이를 통해 수어 통역과 함께 전문적인 미술 교육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며, 늦게 발견한 미술 분야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거라 확신하여 신청 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학창 시절에는 그림에 대한 흥미가 있었으나, 농인이라는 한계로 인해 배워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지만, 당시 선생님들이 수어를 알지 못하고 음성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비장애인처럼 문자로 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어 통역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싶을 때 수어 통역이 없으면 답답함을 느끼지만, 통역이 있을 경우 명확하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개인예산제를 참여하기 전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미술교실에서 기초 미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술에 관심이 있었지만, 수어 통역 등의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했었으나 복지관을 통해 작년에 처음으로 미술 교육을 받으면서 몰랐던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재미있어 한번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복지관을 통해 알게된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생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도전한 서울지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미술분야에서 1등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록 나이는 많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 활동을 하면서 전시회를 열고, 교육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제2의 인생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전문미술교육을 받기 전에는 미술 분야의 도구 사용과 다양한 미술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인예산제를 통해 전문 미술 교육을 시작할 때 “이걸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술 도구나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가기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화 물감을 처음 다룰 때 그 특성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몰라 처음에는 물감이 너무 많이 묻어나서 작품이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수어 통역사를 통해 선생님에게 물어보며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나만의 색을 찾고, 물감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었을 때, 너무 큰 기쁨을 느꼈고 그 당시 감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더불어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등 각각의 재료와 도구에 따른 표현방법을 터득하였고, 특히 스스로도 취약하다고 느꼈던 농도 조절에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머릿속에 표현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미술 작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해 생각한 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 내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인 화가로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개인예산제를 통해 전문 미술교육을 받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꾸준한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열심히 연습하여 실력을 쌓고 농인 미술화가로서 아래와 같이 사회에 기여하고 더불어 개인 활동을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첫째,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미술교육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인 화가로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그리고, 넓은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는 전시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작년에는 서울지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미술분야에서 1등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올해에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합니다.

글쓰기로 세상과 소통하다

청각장애 워킹맘의 새로운 도전

김○○ 님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참여자 소개 및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저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10년간 사진 편집 등의 시각 작업의 경력을 갖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블로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꿈과 블로그를 성장시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로그 운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통역 지원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에 대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블로그 운영 교육을 지원받아 제 꿈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큰 희망이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블로그에 글을 잘 쓰고 싶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글은 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소중한 도구였지만, 통역 지원이 없어서 블로그 운영 관련 강의를 듣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졌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내 고민거리까지 겹치면서 심리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글쓰기 발전이 멈춘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으며, 때로는 장애로 인해 더 나아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힌 듯한 절망감을 경험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로그 운영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 키워드 광고, 전자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개인예산제를 통해 교육 받으며 블로그 작성법과 운영 노하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블로그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서 청각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블로그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 설정, 광고 활용, 전자책 제작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약 개인예산제의 지원이 없었다면 도전하기 어려웠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덕분에 블로그 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진정성 있는 교류를 나누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는 블로그를 꾸준히 성장시키면서 글쓰기로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글쓰기 실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저와 같은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블로그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며, 저의 이러한 경험이 다른 청각장애인들에게도 희망과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일리스트로서의 성공적인 발걸음

박○○ 님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자 소개 및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리스트 박○○입니다. 현재 한화생명에서 임직원 대상 네일샵에서 근무 중입니다. 우측은 보청기를 사용 중이며, 좌측은 와우수술을 한 상태로, 조용한 공간에서 사람의 입 모양과 큰소리를 들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취미는 꽃꽂이와 독서이며, 독후감 작성이 특기입니다. 독후감 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리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평소 서울농인청년회 인원인 청각장애인인 지인이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편입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보를 안내해 주었으며, 지인의 추천으로 이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개인예산제를 통해 지원받기 전에는, 자부담으로 수업을 들었으며, 그마저도 청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필답이나 자막 변환 서비스 없이 수업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 같은 비용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로 네일관리사로 근무 중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운 내용은 기초적인 수준이라, 현장 근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일아트는 다양한 영역(자석네일, 자개네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술 능력에 따라 시술 시간 및 고객의 만족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문제성 손발톱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많아, 이에 따른 응대나 시술 능력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네일아트 공부를 위해 월급의 70%에 달하는 비용을 자부담하며 공부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센터 청인 선생님들은 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실습 시 필요한 시각적 자료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접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이번 지원 덕분에 제가 가장 크게 발전한 부분은 네일아트 기술 시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기존 2시간 20분 소요되던 기술이 1시간 30분, 때에 따라서는 1시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기술 능력도 향상됨에 따라,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일 서비스 및 고객 응대에도 자신감을 얻어, 손님들의 요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술한 네일아트 사진을 매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네일아트 관련 질문을 많이 하고, 저에게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저는 최초의 청각장애인 문제성 손발톱(네일아트) 강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장애가 있는 네일리스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강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느려도 괜찮아

송○○ 님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자 소개 및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저는 미술가이자 삽화가입니다. 주로 유화물감과 아크릴물감을 사용해 풍경화를 그리고, 삽화는 색연필로 명암을 주어 그립니다. 저의 하루는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과 미술 활동들로 채워져 있고, 취미로 피아노를 치기도 합니다.

서양화과를 졸업해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저는 40대에 뇌출혈로 중도 장애를 얻고 약 7년여 어머니와 함께 고립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9월 말, 이웃의 도움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처음 등록을 했고 복지관은 제게 여러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술반 활동을 하면서 23년에는 복지관 업사이클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한국색연필협회 대회에서 입선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감을 얻을 무렵, 복지관을 통해 개인예산제를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설명회에 참여할 때만 해도 제가 감히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선정 과정부터 엄격하게 느껴졌고 담당자와 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먼 꿈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좋은 취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렇지만, 해 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개인예산제에 참여하기 전, 저는 제 몸을 잘 돌보지 않았습시다. 그림을 그리는 게 그저 좋았고, 아무 데서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몸에 떨림이 있고 동작이 느리다 보니 남들이 한 시간이면 할 일을 저는 1~2일씩 걸려서 해야 했습니다. 흔들리는 이젤을 발로 붙잡고 그리다 보니 발에 피가 통하지 않아 아팠고, 엉성하게 고정됐던 캔버스가 떨어져 온몸이 물감투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바닥에 캔버

스를 놓고 옆드려 그림을 그리니 허리가 휘어 요통을 달고 지내야 했습니다. 제 방은 물감과 재료들이 뒤엉켜 뒤죽박죽 엉망이었죠. 개인예산제 참여를 고민할 무렵, 저는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 지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은 해봤지만 어디까지나 제 생활 수준에서 가능한 것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어수선했던 화장대를 정리해 미술용품을 두거나 싸구려 테이블을 구입하거나, 발에 수건을 덧대거나 간이 의자를 두는 수준이었죠. 조금이라도 비싼 건 안 됐고, 싸야지만 샀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제 몸을 환경에 맞추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불편했던 진짜 원인을 찾고 변화하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개인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담당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나를 알게 되었고, 나의 재능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달콤한 꿈을 꾸는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이것만 돼도, 하나만 바뀌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아주 튼튼한 이젤과 안전한 의자가 방에 놓이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미술을 가르쳐주실 선생님(봉사자)도 구하게 되었고, 매달 미술도구를 구입해 걱정 없이 미술을 신나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른 자세로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니 작업 능률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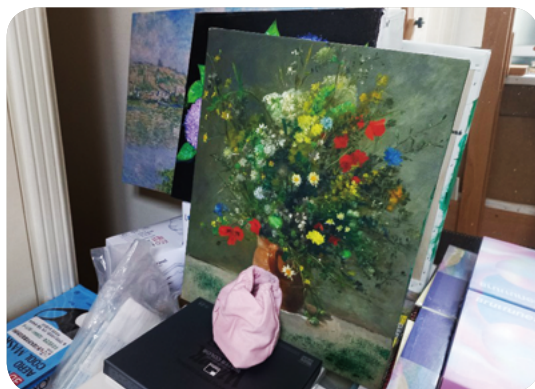


개인예산제에 선정된 이후, 저는 내내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10월 말 노원구청 장애인미술전에 참여했고 장애인인권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복지관 행사로 다정다감 엽서를 나누는데, 재능기부로 삽화를 그려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나도 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제 이름으로 된 동화책 ‘하나뿐인 오빠’를 냈고, 북부직업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 영상을 출품한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흔쾌히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애로 저보다 더 힘들어하셨던 어머니는 복지관 편지쓰기 행사에 참여해 ‘세상 밖으로’를 써서 당선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모습이 ‘비장애인이었을 때보다 더욱 빛나는 것 같다’고 쓰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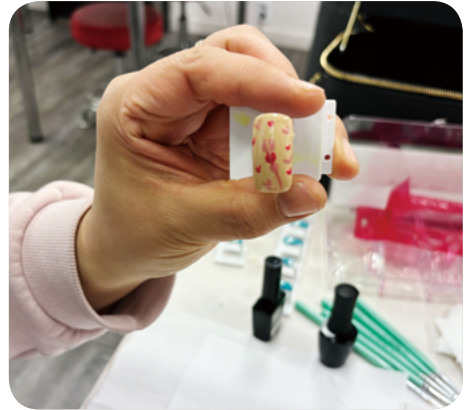
불과 몇 년 전, 집에 숨어지내던 저였다면 상상도 못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는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하느라 너무 바빠 힘들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이뤄갈수록 자존감은 높아지고, 더욱더 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지금의 제 삶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화, 풍경화, 삽화를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다행히 봉사 선생님이 앞으로도 저를 계속 가르쳐주기로 하였고, 올해 미술반도 참여 선정되어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을 통해 미술가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채용 대기자로 등록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처럼, 저 또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도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제 말과 행동이 많이 느려졌고 한때 움츠러들고 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게 성실히 한발 한발 단단하게 나아갈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예산제 참여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일아트로 그리는 새로운 미래

신○○ 님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적적인 회복, 그리고 새로운 도전

육상선수를 꿈꾸던 고등학생의 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3년 간 말도 못하고 기억도 없었지만, 주에 세 번씩 바다에 데려가주시던 엄마의 희생으로 기적과 같이 말이 트였고, 현재는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손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도 열심히 재활한 결과, 현재는 손떨림도 없고 양손의 악력이 좋아 주변 사람들에게 안마해주는 것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방문하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통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40대가 되도록 근로 경험이 없는 저도 사업 참여를 통해 잘 하는 것을 찾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격증 도전의 어려움과 좌절감

이전에 마사지샵 취업을 희망하며 자격증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자신 있었지만 장애로 인한 인지 저하로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서, 당시 필기시험에서 여러 번 탈락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과 같은 기회로 무언가를 배운 후 흥미를 느껴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려 해도, 바우처 적용이 되는 것들은 필기 공부를 해야하는 국가자격과정인 대부분이라 경제적 부담으로 시작조차 용기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겪으며, 장애를 가진 저는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없구나 하는 좌절감이 찾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후 개인예산계획 수립을 위해 담당자 선생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듣고 나서 저의 여러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전에 즐겁게 참여했던 성민복지관 네일아트 프로그램이 떠올랐고, 얼마 전 거리가 멀어 참여하지 못했던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네일아트 교육과정도 생각났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종합해보니,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저의 성향과도 네일

아트는 아주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 담당자 선생님이 네일아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학원에 대한 정보 탐색과 개인예산계획서 작성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시간을 지켜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며 담당자 선생님의 질문에 개방적으로 답하고, 학원을 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들, 예컨대 이동이 용이한 엘리베이터의 유무와 같은 부분들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네일아트로 찾은 새로운 꿈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감사하게도 신청한 모든 영역의 예산을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일아트 기술 함양에 필요한 전문 교육 수강,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재료비, 지팡이를 짚고 한손은 위험상황을 대비하여 빈 상태로 두는 제가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이용료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업을 듣게 된 이후에도 저의 면역력이 낮아 컨디션이 좋지 못한 날이 종종 생겨 수업을 갈 수 없었는데, 다행히 수강한 아카데미에서 제 편의를 봐주셔서 수업을 이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 다른 감사함을 느끼며, 출석하는 날에는 더욱 더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비장애인들과 한 공간에서 함께 수강하는 것이 낯설어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수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욱 집중해서 듣다 보니, 이해력이 높아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를 듣고, 또 조그만 네일팁에 색을 입히고,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고, 파츠를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제 표현력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지원으로 복지관 내에서 제 실력을 뽐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와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며 가깝게 지내는, 감사한 사람들에게 네일아트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분들에게 무언가 보탬이 된다는 느낌에 행복했고, 더 익숙해져서 좋은 실력과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네일아트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며,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좋은 직장에 취업까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변화의 여정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엄○○ 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나의 강점과 재능, 열정

2020년부터 복지관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리스타 직무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후 훈련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커피를 만드는 일이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끈기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근력 강화를 위해 주 1회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고, 친구들과 만나 식사하거나 영화를 보며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준비했습니다. 필기시험은 합격했지만, 실기시험에서는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에스프레소 추출, 핸드링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실기 시험에서는 신체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 긴장도가 높아져 목과 손의 떨림이 심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고, 바리스타의 꿈은 점점 막연한 희망으로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참여 동기

이런 상황에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예산제라는 개념이 생소했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애 특성상 교육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고, 교육 환경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교육

을 받을 필요성이 컸고,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제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맞춤형 교육이 부족해 쉽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단체 수업에서는 저에게 맞는 속도로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리스타 실기시험에서 계속 불합격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졌고, 복지관에서 근무할 때에도 고객 응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개인예산제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참여 이전 나의 상황

사업에 참여하기 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은 너무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계속 불합격하면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또한, 고객 응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졌고, 바리스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위축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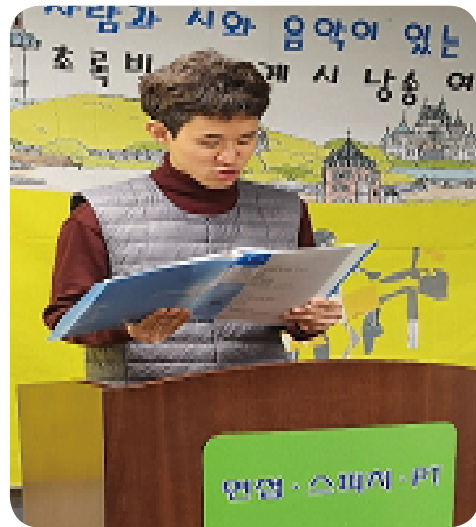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체계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바리스타 교육 과정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었고, 단체 수업에서는 저만의 학습 속도를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기회가 부족했고, 시험장에서 긴장도가 높아지는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장애로 인해 교육 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참여 이후 나의 상황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1대1 맞춤형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에게 맞는 속도로 커피머신 사용법, 스팀 사용법, 원두 수평 맞추는 법, 라떼아트 등의 기술을 익히면서 바리스타 2급 자격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1대1 스피치 교육도 함께 진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습 과정에서는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꾸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스피치 교육 또한 처음에는 긴장이 많았지만, 반복적인 연습과 강사님의 지도 덕분에 점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 덕분에 결국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바리스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피치 교육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고, 복지관 내에서 먼저 농담을 건네거나 인사를 주도적으로 하는 등 성격도 한층 밝아졌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복지관에서 “위트 있는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 사업을 통해 단순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도전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면서, 스스로를 더 믿게 되었고 앞으로의 도전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무 경험을 더욱 쌓기 위해 지역사회 내 카페에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리스타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애로 인해 제약이 있는 많은 이들이 저처럼 자신만의 속도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며 바리스타로서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가족공예 수강을 통해 미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다

오○○ 님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자 소개

20대에 뇌종양에 의한 눈 사이 시신경 손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고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근 10년간 집에만 있는 시간을 보냈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다시 찾고자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역의 복지관 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손을 많이 움직여야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으로, 요리를 비롯해 다양한 공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저의 손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조화를 활용해 리스와 자석을 만드는 것이 뛰어나 만나는 복지관 선생님들과 동료들에게 선물을 많이 하며 지냈습니다.

비록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꾸준한 연습과 관심으로 재능을 키워 공예 활동 때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동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프로그램 강사(비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특성을 동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강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대변하면서 다 같이 좋은 퀄리티의 공예품을 완성하도록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과 능력을 높이고 싶었고, 장애인만 있는 사회가 아닌 지역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면서 저 자신을 좀 더 넓은 사회로 나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틀 안에 있기보다는 ‘장애인도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다’, ‘장애인도 해낼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마음속을 품고만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움직여서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이전에도 다양한 공예 활동을 경험하면서 재능을 발견하였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단편적인 선입견과 편견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른 공예 수업의 수강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 반복해서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강사 선생님이 “어려울 것 같다, 보이지 않아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며 미리 선을 긋거나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복지관 등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장애 정도가 각각 다양하여 강사 선생님이 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저 이외에도 다른 동료들의 수준을 낮게 보고 기본적 활동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안에서 역할을 찾고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높이고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거나 때로는 위험한 환경에서라도 점차 높은 수준의 활동들을 경험해야 하는데 “안전”이라는 진행자의 판단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으로 계속 낮은 수준으로만 진행되어 답답함과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는 계속해서 좌절되고 있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시각장애가 있는 저에게 ‘손’은 눈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해보고 싶었던 가족 공예를 배우으로써 손 감각의 발달과 함께 성취감이 매우 높은 시간이었





습니다. 이 덕분에 일상에 정말 많은 활력이 되었고, 다른 장애 동료들과도 저의 희망을 같이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장애 특성상 밝은 환경에서 오른쪽 동공의 1/10정도만 형태 구분이 가능한 시각적 제한이 있어서 가죽을 자르는 작업, 즉 칼로 재단하는 작업은 아직 도전해보지 못했습니다. 디자인이나 재단을 강사 선생님이 해주시면, 저는 재단해 놓은 것에 구멍을 뚫고 바느질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전이고 의미있는 참여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죽에 있는 바늘 구멍을 찾고, 가죽과 가죽을 붙이는 것을 강사 선생님께서 위치를 직접 알려주거나 실의 엉킴을 풀어주는 등 저를 배려해주면서 도움도 주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공예에 능숙해지자,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등 멘토처럼 가르쳐주셨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점점 쌓이다보니, 손에 감각이 잡히면서 마치 습관처럼 되어 어느 순간에는 실이 꼬일 것 같은 느낌이 알게 되고, 직접 실을 풀기도 하면서 정말 손이 눈이 되어갔습니다. 점차 자신감도 붙으면서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기다려지는 그 설레임, 또 완성품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제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완성품과 활동 과정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신기해하고, 놀라하였는데 이런 지인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저 역시 저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을 더욱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관 등 제가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참여하는 형식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찾고, 또 제가 직접 선택한 기관에서 활동을 진행했던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해야겠다는 동기부여와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일상을 살며 그동안 다니던 곳들의 익숙한 생활환경이 이번 기회로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고, 저의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어서 삶에 긍정적인 활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세심한 바느질을 통해 손 감각에 자신감을 많이 가지게 되어, 앞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목표로는 제일 어렵다는 도자기 공예, 라탄 바구니 만들기, 비누공예 등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베품’의 실천을 통해 “좋은 경험들은 나눌수록 더 큰 기쁨과 행복한 영향력이 전달된다”는 것을 느껴온 제 삶의 중요한 신념에 따라, 제가 배운 공예 경험들을 주변 동료들도 ‘장애’라는 제한에 갇히지 않고 각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옆에서 도우며 같이 멋진 작품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지역에서 소소하게 플리마켓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경제시장에도 참여하면서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장애예술인

이○○ 님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나에게 예술은 가치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정표

저는 2016년부터 장애인문화예술극회횃이라는 장애인극단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입니다. 지금은 배우 외에도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레고 만들기라는 소소한 취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으로 살아오며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었으나,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변화하고 성장하며 예술은 제 삶에 절대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배우로 연기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희곡을 써 공연을 만들고, 연출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문화예술극회횃의 단장이라는 역할을 맡아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술은 저에게 가치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배고픈 직업이기도 합니다.

비전공자로서의 한계와 고민, 개인예산제를 만나다

저는 다른 예술계열 전공자와 달리 안마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 우연히 연극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예술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점이 다릅니다. 전공자들이 배우는 발성, 움직이는 방법 등 다양한 테크닉을 배운 적 없이 목표만을 향해 달리다보니 내가 가진 역량의 불확실함,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누군가의 지도를 통해 나의 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제가 절실히 느끼던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

대를 가지고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예산제에 선정되어 늘 갈구 하던 개인레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 상황에 맞는 개인 레슨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시각 장애의 특성상 일대 다수의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던 저에게 천금과도 같은 기회였습니다. 저를 지도해주신 강사분들께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 이셨고, 저의 상황에 맞는 개인 레슨을 열정적으로 진행해주셨습니다.

안무 레슨을 통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중심잡는 법, 근육을 키우는 방법 등 여러 동작과 기술을 알고 보컬 레슨을 통해 제대로 된 발성법, 호흡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가져오던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점차 변화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몇 차례의 레슨으로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기초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습하고 익숙해지게 되면 저는 분명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개인예산제를 기획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넘어선 도전, 향기로 밝힌 내일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빛을 더하다

이○○ 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안마사로서의 새로운 길과 희망

저는 그동안 타인의 아픔을 듣고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목사로서 많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돕는 기쁨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사람들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돕는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법적으로 유보직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각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서 안마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안마사로서의 삶을 열어갔습니다. 지금은 안마사로서 현장에서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제 손끝으로 전하는 온기가 또 다른 위로가 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로마 심리 상담가를 향한 꿈과 현실의 벽

사람들의 몸을 풀어주는 안마사로 일하면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아로마심리상담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향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면 시각

장애가 있는 저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해 교육의 한계로 제 꿈은 가로막혔습니다. 시각장애로 인한 대체자료, 감각을 활용한 교수법 지도 등이 필요했지만 대부분의 교육 기관은 이러한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개인지도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교육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저 ‘하고 싶다’는 생각만 품고 있었을 뿐, 실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저의 꿈은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열린 가능성

그러던 중,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개인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이제는 나도 배울 수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났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담당 선생님과 개인예산계획 작성을 위한 상담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가진 강점과 장애로 인한 제약, 심리적 열망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주체자가 되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꿈을 꿀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저는 하고 싶은 바를 명확히 하고, 개인예산계획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 꿈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아로마, 심리, 안마를 결합한 나만의 안마원을 만들자.’ 이 목표는 이제 단순한 바



람이 아닙니다. 장애를 겪으며 느낀 한계를 넘어, 저와 같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자 저의 길이 되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로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아로마 심리상담사, 인지후각심리상담사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로마 향의 후각을 활용한 상담기법을 배우면서, 눈이 아닌 ‘향기’로 마음을 읽고, 손끝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교육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교육량이 많아 부담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자료로 보완하며 학습했고, 강의를 녹음해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사님의 개별 지도와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감각을 통한 반복 학습으로 하나씩 배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안마와 아로마, 그리고 심리 상담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창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는 ‘쉼터’를 만들어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저처럼 중도장애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힘이 되고 싶습니다.

빛을 잃었다고 해서 꿈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선택하고 실현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

임○○ 님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자 소개 및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저는 어린이중국어지도사가 되기 위해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매일 중국어 강의를 듣고 회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여 디지털드로잉과 캘리그래피를 배우며 중국어를 재미있게 가르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꼼꼼한 성격이라, 목표를 세우면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목표한 학습량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잠을 자고, 배운 것을 여러 번 반복해 연습하곤 합니다. 이런 끈기가 바로 저의 특징입니다.

복지관에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안내받았을 때, 저는 우울증과 정신적 공허함으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담당자와 몇 차례 상담을 하면서, 장애 직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을 다니며 어린이중국어지도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꿈 많고 열정적이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인형 한복을 만들어 SNS를 운영할 정도로 손재주도 남달랐습니다. ‘개인예산제로 예전의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떨림과 낯섦,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잊었던 꿈에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재활에 집중하며 무너졌던 마음을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다시 채우고, 제 삶의 활력과 온기를 다시금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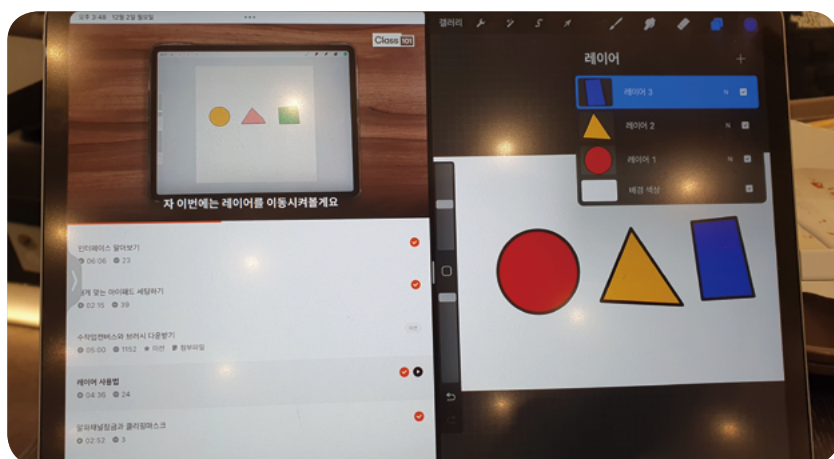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저는 편마비에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중도 장애 이후 3년여 시간 동안 재활치료 외 아무런 외부 활동 없이 TV만 보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가면 화장실 가는 것부터 문제가 되니 계속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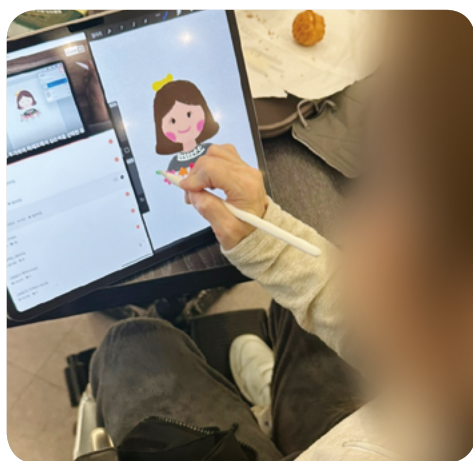
안에 머무는 것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를 잘 몰라 장기 요양서비스를 먼저 신청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더 집에 고립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고,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인 제 딸은 24년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무기력한 상태의 저를 돌보고 홀로 가장 노릇을 하느라 동분서주하다가 한 학기만에 휴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저의 시선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저는 중국어 온라인 교육, 화상 중국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또 어린이중국어 지도를 위한 교재와 교구를 구입했고 디지털드로잉, 디지털캘리그래피를 배웠습니다. 오랜만의 공부라, 의욕만큼 따라주지 않는 머리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것을 자꾸 찾게 되었고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오프라인이나 방문수업으로 직접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빨리 밖으로 나가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면 활동지원이 꼭 필요하니 지난 2월 초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제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하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단에서 집에 다녀갔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후, 제 삶에 대한 절박함이 달라졌고 ‘해 보자’,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 덕분에, 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덩달아 좋아진 점은 저희 딸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패드를 사용하다 보니 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면서 대화량이 전보다 20%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 피곤해서 밤에 꿀잠을 자게 되었고, 엄마가 공부하느라 바쁘니 딸도 마음 놓고 제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저를 돌보느라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해 얼마 전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은 딸이 최근 한 달 만에 10kg을 뺐다는 것입니다. 저를 닮아 저희 딸도 ‘한다면 하는 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저는 계속 중국어를 공부하고 몇 년 안에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어린이중국어지도사 자격을 꼭 취득할 것입니다. 우선 지금 배우는 온라인 중국어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지역 내에서 중국어교육, 디지털드로잉, 캘리그래피 등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열심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중국어 교육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중국어 지도를 위한 교재, 교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졌고, 심화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교육이 있다면 방문교육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해도 달려가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중국어 실력을 열심히 쌓아, 직접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마를 묵묵히 지원하며 기다려 준 딸이 자신의 꿈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가 곁에서 응원하며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번째 스무살을 위하여 다시 도전하는 ‘나’

정○○ 님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자 소개

자신의 삶을 다룬 이야기를 바탕으로 2006년 에세이집 ‘꽃보다 활짝 피어라’를 발간하였습니다. 책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참여자분의 삶에 대해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보여주고 있어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똑같은 삶을 지향한다’는 자신의 삶의 모토를 이야기하며, 사회에 투쟁적이었으나 주도적인 삶으로 아름답게 살고자 노력하였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또한 참여자분은 2002년도 영화 ‘오아시스’에서 문소리가 연기했던 여자주인공의 롤모델을 하셨던 분으로 이미 장애인 예술계에서 유명하십니다. 문소리 배우와 3개월 동거동락하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사랑과 삶에 대해서 공유하였으나 영화 오아시스에 나온 여자주인공의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영화에서 나온 사람은 말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으나 인간 정○○는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여자분은 주몽학교를 졸업 후 2002년도 일본 마츠다시에 있는 안비샤스에서 자립생활과 지도자교육을 연수하고 같은 해에 장애시민 행동연대 단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식개선 강사, 인권강사, 편의시설 조사 등 장애인권 관련한 활동도 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장애인단체에서 시행한 시나리오작가교실은 집단 교육으로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생각하는 그림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것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한편이 완성되지 않아 더 배우고 싶더라고 비용, 공간, 인력 문제로 지속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성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스텝들 구성이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영화로 제작 이전에 작업 수행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가교실에서 인연이 된 강사님은 대학교수로 영화계의 저명하신 분이라 시간과 비용을 맞추기에는 경제적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로 편의시설 조사를 함에 따라 활동지원시간, 근로시간 등등 조율해야하는 활동지원사와 협력도 중요하였습니다. 참여자분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에는 일자리, 활동지원, 여러 활동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참여자분은 인생에 우여곡절이 여러 번 있었으나 가장 어려움을 준 것은 바로 세 번의 경추수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에 걸친 수술을 겪고 난 이후 움직임에 많은 제한이 따랐으며 이야기 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술 이후 주변사람들에 대한 신뢰, 믿음, 참여자 분 자신의 삶의 목적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참여자분은 이번 개인예산제 시나리오작가 양성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시나리오로 나타냈습니다. 그녀가 탈고한 시나리오 제목은 ‘나의 세 번째 스무살 - 네 번의 수술’로 그녀의 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에 대한 과정 등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과정속에서는 수술을 결심하게 만드는 의료진, 참여자분 곁에서 항상 지지하는 활동지원사, 그녀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술비를 지원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회복지사의 경험적 근거를 담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하나의 완성된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세 번의 경추수술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와주는 지인들로부터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의 희망과 꿈을 잃지 않으려 하는 참여자분은 현재 ‘세 번째 스무살’이라는 시나리오를 탈고하며 또 다시 도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시나리오 레슨을 받으며, 어렵고 곤경에 처한 상황에 놓인 주인공이 다시 스무살 청년의 시작과 젊음, 아름다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분은 이러한 시나리오 속 주인공처럼 다시 한번 참여자분 스스로의 ‘세 번째 스무살’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계기로 영화 주제와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실제 영화로 제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축제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장애인 영화스텝들이 함께하는 작업으로 참여자분 이외에 5명의 장애인 동료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3월 선정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기회로 참여자분의 삶과 아픔, 그리고 행복, 도전에 대해 많은 활동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하여 글쓰기의 재능이 있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장애인 동료들과 자조모임도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의 내용을 그림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른 문화예술인들과 콜라보하는 작업도 준비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제 출품 이외에 다양한 활동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꿈이 현실이 되면 목표는 내 안에 있다

정○○ 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참여자 소개

안녕하세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정○○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특수 학교에서 안마사 교육을 받은 후 제주도 호텔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28년 동안 안마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독립적인 성향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단 스스로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였지만, 시력 문제로 이동과 안전에 제약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탈 것에 대한 동경을 가졌던 저는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에 올라탄 순간만큼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저 내 의지에 따라 이동함으로써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언제나 자전거에 올라 시원한 바람에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정도로 저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고, 취미 생활을 넘어 애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동기

안마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은 성취감이 되었지만, 시력 저하로 유일한 취미였던 자전거를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되면서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저한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자전거를 대체하고자 다른 취미를 찾게 되었고, 우연히 근무지 근처 승마장을 발견하였습니다. 낙마 사고 등 안전성의 문제로 걱정이 앞섰지만, 새로운 취미와 탈것에 대한 열망으로 승마 체험을 진행했고, 시각장애인도 충분한 훈련이 뒷받침된다면 타인의 도움 없이 승마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을 쓰다듬으며 직접적인 교감을 이뤄 심리적 안정감을 받을 수 있었던 승마는 이후 단순한 체험이 아닌 정식 교육으로 넘어갔

고, 본인은 어느새 승마 선수로서 대회를 누비는 상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갑작스레 서울로 이직함으로써 승마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고, 길지 않은 교육 기간은 막연하게나마 승마 선수라는 꿈을 갖게 되었는지 마음속에 미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정식으로 승마를 이어가고자 교육 업체를 찾아보았지만, 안전 문제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고, 체험 승마만 가능하다는 말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승마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제한 속에서도 승마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 장애인승마협회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의 정보 공유 및 안내로 ‘202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었고, 연계 승마장에서 짧은 기간 교육받아 동메달까지 수상하며 장애인 승마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목표인 정식 승마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시간을 꾸준히 할애하여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었고, 높은 강습비와 이동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다가오자 점점 버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안은 채 승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고심하던 중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알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제도라는 생각으로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지 근처의 가까운 지원기관이 있었지만, 시각장애에 특화된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선택하여 상담받았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은 본인의 특성과 상황을 잘 이해해 주어 여러 번의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본인이 처했던 상황을 편히 얘기할 수 있었고, 개인예산계획을 수립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 시각장애인 최초의 승마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의 나

저는 그 누구보다 활동적이지만, 시각장애로 다양한 활동을 제한받으며 자신을 더욱 억압하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유보 직종인 안마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정 좋아하고, 바라는 직업을 갖고자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승마 선수라는 꿈은 교육 기관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부담감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만나고 달라진 나의 모습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시각장애인 승마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잃지 않고,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라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기초부터 확립하다 보니 확연한 실력의 성장을 느끼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가대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계획

이제는 단순 취미 활동을 넘어 최초의 시각장애인 승마 국가대표 선수로서 내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기에 2025년 진행될 장애인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고자 꾸준한 연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장애인 승마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일궈내고,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시각장애인이 잠재되었던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이든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꿈과 현실, 그 사이에서 고심하던 본인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탱해 주었던 따뜻한 팔짱과도 같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

최○○ 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나의 강점과 재능, 열정

가정불화와 또래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달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글쓰기와 책 읽기였습니다. 책에 한 번 몰두하면 5시간 넘게 독서를 하고, 새벽까지 글을 쓰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며, 제 글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과 감동을 느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잃지 않기 위해 각종 발표회 및 예술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연속으로 상을 수상하고, 글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고자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여 배움을 위해 죽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왼손은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오른쪽 손가락은 세 개의 손가락만 움직이다 보니 하나의 시를 쓰는 데에 비장애인들보다 4~5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식 시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2024년 개인 시집 「세상은 모두가 희망」을 발간하여 공식 예술인으로서 인정받아 대외적으로 작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참여 동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 받았던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 매사에 자신감이 낮고, 위축되어 있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타인과 소통할 때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러왔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글쓰기를 통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

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기회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되었고, 알콜 의존증으로 인해 저를 케어하는 데에 소홀한 보호자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작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금전적인 어려움과 ‘무명작가’라는 사회적 제약은 사회적으로 보다 더 영향력 있는 시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는 실정이었기에 인지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 브랜딩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저만의 창작 시와 저만의 손글씨 낙관이 담긴 사설패트 디퓨저를 창작해내어 사회 공헌 및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와 사회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뇌성마비 시인으로서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 및 고용 안정성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여 이전 나의 상황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말하는 것이 어렵고, 큰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졌으며, 살아간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 매사에 의욕이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예술인으로서 인정받았지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심리적 회의감과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전에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 채용·취업 박람회’에 참여해 사회 공헌 및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나의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직업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참여 이후 나의 상황

봉투에 삽입할 자작 시를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저만의 특색, 뇌성마비 시인으로 서의 특색을 잘 담아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희망’과 ‘기다림’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시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희망’은 저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라는 벽에 부딪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그 꿈을 실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기다림’은 저의 시를 접하는 비장애인들이 말과 행동, 생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을 인식하고, 이해했으면 바램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만들어 낸 사채 디퓨저를 병원, 공공기관, 복지기관, 교회 등에 직접 홍보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어려워하는 저에게 너무나 어렵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나의 작품을 홍보하고, 결과물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경험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고, 진정으로 ‘행복을 전하는 파랑새 작가’가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은 「오투기직업재활센터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훈련생으로 취업하게 되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고, 글 쓰는 직업을 가지고자 했던



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사웨 디퓨저의 향에 맞는 시를 써내고 이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 받음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역량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자립에 대한 의욕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로 신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문가와 꾸준히 운동하며 보호자의 지원 없이도 제 몸을 스스로 움직이고,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제가 진정으로 ‘행복을 전하는 파랑새 작가’로 성장하고, 취업이라는 꿈을 실현시키는 데에 큰 발판이 되어준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용기 내 저의 개인 브랜딩화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두 번째 시집 발간을 통해 작가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자로부터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훈련생으로서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운동·상담·금전 관리 등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실

열정이 꽃피우는 순간들

지원 코디네이터

참여 소감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견여은)	68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김예영)	70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김나리)	72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서연정)	74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김민아)	76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김태완)	78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박범수)	80

함께 성장하다 : 개인예산제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하다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견여은

지원 코디네이터로서 바라본 개인예산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지원 코디네이터로 참여하며 제도의 초기 단계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개인예산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가는 것을 넘어, 참여자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참여자의 입장에서 제도와 물리적 환경을 바라보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참여자의 선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며 충분한 정보를 참여자의 입장에서 안내하고 있는지, 상담 장소로 이동



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를 점검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참여자의 개별적인 니즈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법을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부딪히고 넘어지는 주택을 개조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직업과 관련된 역량 강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도전과 한계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예산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확대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개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참여자와 지원 코디네이터 모두 예산 사용처와 범위의 제한이 크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산의 제한이 크면 단순히 지원받는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개별적인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기관 중심의 서비스로 흐르게 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면, 참여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더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다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개인예산제가 만들어갈 변화의 가능성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있음에도 개인예산제가 필요한 제도인지 반문한다면, 저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자가 그동안 막연히 희망하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경험을 했으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개인예산제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참여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참여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욱 유연해지고 참여 대상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변화의 시작: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또다른 의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예영

변화의 시작,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저에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 경력 3년 동안, 저는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며 당황하기도 하고, 위기상황에 좌절과 혼란을 느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강점관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지원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회의감이 들곤 했습니다. 복잡한 어려움을 가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사례관리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강점과 자원은 결국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아닌 꿈과 목표를 바라보다

그러나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는 어려움이 아닌 꿈과 목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당사자의 재능과 장점을 발견하고,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저를 기대감으로 부풀게 하였습니다. 예산을 통해 개인별 계획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사자 분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즐거움과 만족감은 저에게도 감동과 벅참을 주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 중 점심시간 1시간, 틈을 내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사격 연습장으로 향하시는 신민경님이 저에게 큰 놀라움을 주셨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휴식시간도 포기하고 사격연습에 매진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개인예산제가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변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일상 속에서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사자 가족 뿐 아니라 실무자의 시각과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더 많은 장애인 분들과 지원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사회에서의 참여를 통해 더욱 의미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각 개인의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체성의 힘’과 ‘행동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던 과정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김나리

새로운 기획의 시작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경험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바라보기만 하였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그러한 경험에 다가설 수 있었던 기회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모의 적용사업과 달리 실제 예산이 운영되는 부분이기에, 참여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자로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예산 계획, 고민과 도전의 과정

그러나 개인예산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에게 이러한 고민을 하게끔 던져준 질문이 처음이기에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도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또한 목표설정과 예산 배분 기준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대감과 아쉬움이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예산제의 선정이 목적이 아니라, 참여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보다 중요한 변화의 과정

개인예산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정 과정이 아니라, 선정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었을 때, 참여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예산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참여자는 개인예산제를 활용하여 해외 학술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기 위해 해외 답사가 필수적이었기에, 개인예산제가 연구 과정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이 참여자들의 삶을 더욱 확장하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예산제의 발전을 위한 방향

물론 아직은 시범사업이기에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았습니다. 개인예산제가 무엇인지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하며, 당사자-가족-지원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맞춤형 개인예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주체성의 힘’을 경험하고, ‘행동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예산제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자산 발굴 및 당사자의 사회참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연정

당사자의 꿈 실현을 위한 발판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꿈을 위한 현실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좀 더 지속돼서 충분히 주어진다면, 당사자의 꿈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자산 발굴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탐색하고 발굴함으로써,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또 공유됨으로써, 많은 당사자가 지역사회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원영역의 설정 고려 필요

지원영역이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몇 개의 지원 영역에만 승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건강영역은 당사자의 욕구가 가장 많은 영역임에도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예산제 지원 영역 설정 및 참여자 모집 시 명확한 설명 등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주도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당사자와 주도적으로 개인예산을 계획하고, 당사자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자원을 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당사자의 주도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예산제는 당사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사업인 만큼, 당사자가 직접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이행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어떠한 변화와 성과가 있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된다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민아

시각장애인의 삶을 고민하며

나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로서,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이러한 고민 속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참여자들의 꿈을 설계하는 과정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꿈을 들여다보며,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데 집중했다. 시각장애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일상의 작은 단



서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약 속에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았다. 때로는 참여자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한 나머지, 밤잠을 설치고 심지어는 시각장애인 이 되어 계획서를 작성하는 꿈까지 꾸기도 했다.

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들이 모이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며 한 문장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큰 의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며 장애로 인해 학습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강사들에게 시각장애인 교수법을 안내하며 개별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했다. 장애는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음을 시각장애인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차근차근 마련된 환경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다. “저도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라는 한 참여자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는다. 변화는 단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더 많은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기를 바라며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참여자들은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며,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변화를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고, 앞으로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분들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하여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으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삶을 향한 도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무자로서의 경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김태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개인예산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실무자로 참여하면서, 개인예산을 통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개인예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인예산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점

개인예산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참여자의 자기주도성 확보였다. 실무자로서 참여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와 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참여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기반으로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자기주도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었다. 참여자가 개인예산제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원하는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 교육과 정보 제공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역 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참여자의 욕구와 서비스 매칭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원하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신규 참여자의 경우,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참여자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 필요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하려 했으나, 일부 급여량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 참여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의신청 절차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승인 결과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이 부족해 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향후에는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자에게 보다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예산제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

전반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삶을 보다 자기주도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체감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 완화,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행정 절차 개선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참여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뤄두었던 당사자의 꿈을 펼치게 해 준 ‘개인예산제’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박범수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와의 만남

2024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에 실무자로 참여하면서, 청각장애인분들의 다양한 욕구와 삶의 배경,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자들과의 상담을 통한 이해와 공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참여자들과 상담을 거듭할수록 그들의 현재 상황과 욕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분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체감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커져갔습니다.



함께 나눈 기쁨과 실질적인 지원

예산계획이 승인되었을 때는 참여자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학원·수어·문자 통역 등 필요한 자원을 찾아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여자들도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만족도가 높았고, 이행점검 과정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는 때는 저 또한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개인예산제가 만들어준 새로운 기회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미뤘었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실무자인 저에게도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다짐

이러한 뜻깊은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서울시복지재단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